

유길준의 「서유견문(西遊見聞)」에 수록된 세계지리 내용에 대한 고찰*

서태열**

A Study on World Geography Contents Included in *Seoyu-gyeonmun* (「西遊見聞」) by Yu Kil-Chun*

Tae-Yeol Seo**

요약 : 구한말 개화운동의 선구자인 유길준(兪吉濬, 1856-1914)은 한국 최초로 일본과 미국에서 유학하고 귀국한 후, 자신의 개화사상을 담은 「서유견문(西遊見聞)」을 연금(軟禁) 생활 중에 집필하였다. 유길준은 박규수(朴珪壽)에게서 받은 지리 서적인 「해국도지(海國圖志)」 등을 통해 세계적 흐름을 보는 눈을 넓히기 시작하여, 유학중 일본에서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문명론과 미국에서 에드워드 모스(Edward S. Morse)의 사회진화론을 배워 조선의 개혁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고, 그 방향에 따라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 그의 지리적 관심과 세계문명의 대한 관심은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었고, 그가 쓴 대표적인 개화와 계몽을 위한 서적인 「서유견문」의 시작과 끝에는 세계에 대한 지리 지식이 위치하고 있었다. 「서유견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방면에 걸친 조선의 개화와 개혁의 전망을 제시하였는데, 처음과 끝에 포진한 세계지리 내용은 자연세계에서 시작하여 국가와 사회로 관심을 옮긴 다음 세계적 관점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매커니즘이자 장치였다.

주요어 : 「서유견문(西遊見聞)」, 유길준(兪吉濬), 「해국도지(海國圖志)」, 박규수(朴珪壽),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에드워드 모스(Edward S. Morse), 세계지리

Abstract : This study tried to examine roles and characteristics, meaning of contents and its structure of *Seoyu-gyeonmun* (「西遊見聞」) by Yu Kil-Chun (兪吉濬, 1856-1914), particularly focusing on contents of geography. Yu started to open the viewpoint and vision on the world society through *Haegug-dogi* (「海國圖志」) guided by Park Khu-Su, and tried to suggest the road-map of enlightenment and illumination in Korea through his experience of studying abroad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Yu learned ideas of enlightenment through Fukujawa Yukichi (福澤諭吉), and Social Darwinism through Edward S. Morse. Yu positioned geographic knowledge at the starting point and concluding part of his book *Seoyu-gyeonmun* to recognize the situation of Korea and to enhance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World, and to expand the horizon and viewpoint on the world.

Key Words : *Seoyu-gyeonmun* (「西遊見聞」), Yu Kil-Chun, *Haegug-dogi* (「海國圖志」), Park Kyu-Su, Fukujawa Yukichi (福澤諭吉), Edward S. Morse, World geography

*이 연구는 2019년 고려대학교 사범대학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rea University, tyseo@korea.ac.kr)

I. 서론

19세기 말은 세계적인 격변기였으며, 서구열강의 아시아로의 침탈이 더욱 격심해지고, 일제가 서구화와 근국화를 통하여 아시아에 대한 지배야욕을 높였던 시기였다. 이 시기 조선은 1884년 갑신정변(甲申政變), 1894년 갑오개혁(甲午改革) 등 자체적인 개혁 그리고 개화와 계몽을 통하여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였으나,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시련을 겪고 있었다.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국가를 개혁하려는 선각자들이 세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완고한 한학자들까지도 세계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세계지리 관련서적을 저술하기도 하였다. 즉 험버트(Homer B. Hulbert)의 「스민필지」(1891)를 비롯하여 최초의 근대적 국가 행정기관의 하나인 학부에서의 출판한 「소학만국지지(小學萬國地誌)」(1895)와 오홍묵(吳弘默)의 「여제촬요(輿載撮要)」(1896)와 같은 세계지리 서적과 교과서들이 나타났다. 이 시기에 국내에서 간행된 세계지리 관련 서적들은 세계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화이관(華夷觀)에 근거한 중화사상을 혁파하고(남상준, 1992), 보다 넓은 세계와 인류역사의 발전과정에 대한 인식과 중국 밖 세계의 발달된 문명에 대한 인식을 가져왔다. 그리고 한국 최초의 근대신문인 「한성순보(漢城旬報)」도 세계지리 내용을 대륙별로, 국가별로 순차적으로 실어 나갔는데, 이는 국민에게 지구 전체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아시아와 세계의 독립된 구성원이자 주체라는 자각, 좀 더 발전된 문명을 이루어 서구열강의 침탈을 막아야한다는 인식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길준(兪吉濬, 1856-1914)은 대표적인 개화 및 계몽서적인 국한문혼용의 「서유견문(西遊見聞)」¹⁾을 집필하였다. 이 책은 「서문」과 「비고」를 포함 모두 20권 71항목 556쪽의 방대한 분량으로 국가, 국민, 정부, 세금, 교육, 화폐, 학문, 상법, 결혼, 의식주 제도, 사회복지, 교통과 통신의 많은 분야에 걸쳐 서구의 문명과 문물을 소개하였는데,²⁾ 도입부와 마지막 부분에 세계지리 내용을 위치시켰다. 즉 유길준은 「서유견문」의 제1편, 제2편, 그리고 제13편의 근대학문으로서 지리학의 소개, 제18편의 도시, 그리고 제19편과 제20편의 세계의

대도회(대도시)에 걸쳐서 지리 내용을 다루었다. 이렇게 하여 「서유견문」은 지구에서 시작하여 서양문물과 제도 그리고 서구문명의 꽃인 서양의 도시로 끝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유길준은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여 실천적 삶을 살아가는 선각자 중 한 명이었다. 과거급제가 모든 양반들의 소망이던 때에 향시에서 장원을 하였음에도 과거시험의 폐단을 알고 이후에 응시하지 않았으며, 최초로 일본 유학(1881년 5월-1882년 12월)과 미국 유학(1883년 7월-1885년 9월)을 하여 근대 국민국가의 선진 문물과 사회진화론 등 새로운 사조를 동시대인 중 가장 먼저 보고 수용하였다(허동현, 2017:37). 이러한 유길준의 세계관과 지적 토대를 만드는데 세 명의 인물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국내의 개화파 인사들과 교류할 기회를 만들어주고 개화와 개혁의 방향을 지도해준 박규수(朴珪壽), 일본에 유학하여 신문물과 세계에 대한 인식을 가지는데 도움을 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그리고 미국 유학시절에 사회진화론을 통하여 서구사회의 발전 방향을 읽고 기초 학문의 지식을 습득하게 해준 미국인 에드워드 모스(Edward S. Morse)가 그들이다. 또한 유길준의 문중의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유만주(兪萬柱)의 문하에서 동문수학하면서 알게 된 정계의 실력자 민영익(閔泳翊)은 유길준의 두 차례 유학을 지원하여 일본과 미국에서 견문을 넓히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데 중요한 도움을 주었다.

유길준은 19세기 말 조선의 개화와 개혁을 주도적으로 끌고 갔지만, 미국 유학 후 귀국하자마자 7년간의 연금생활, 갑오경장이후 일본에서의 12년간의 망명과 격리생활을 마치고 1907년에서야 다시 귀국하는 등 시련도 많았는데, 7년간의 연금생활을 시작하면서 「서유견문」을 집필하였다. 그리고 일본에서의 12년간의 망명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일제강점 시 일제로부터 남작 작위가 수여되었으나 거부하였으며, 교육과 사회운동에 전념하였다.

이 연구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조선의 개화와 개혁을 이끌어간 유길준이 쓴 대표적인 계몽서적인 「서유견문」에서 지리적 지식들이 어떻게 다루어졌으며, 그가 사용한 지리적 지식의 배경과 원천이 무엇이며, 그 원천이 되는 전거들이 무엇인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II. 유길준의 지리 지식의 형성과정과 배경

1. 박규수의 지리 지식과 유길준

박규수는 1860년대 혹은 1870년대에 이르러 실학에서 개화사상으로 전환함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개화사상가’가 되었다. 1840년대 전후한 시기의 제1차 아편전쟁으로 중국을 통해 서구세력에 대한 위기의식을 인지하면서, 종전의 복고적 예학 연구에서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세계사적 격변에 대처하기 위한 시무책(時務策)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중대한 사상변화가 일어났었다(김명호, 2008:468). 이러한 변화로 그는 사랑방 모임을 통해 김옥균, 홍영식, 박영효, 서재필, 박정양, 윤치호 등 개화파 청년들에게 해외사정과 세계에 대한 신지식을 넓혀가도록 하였으며, 이들은 조선의 개화를 이끌어갈 핵심 인물들이 되었다.

한국 개화사상의 선구적인 인물인 박규수³⁾와 유길준의 만남은 1873년 유길준의 외할아버지인 이경직(李耕植)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적대가문 간의 구원을 풀고 박규수의 사랑방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해외 사정과 세계에 대한 신지식을 넓힌 것이지만, 국가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박규수의 사랑방 모임의 인재들은 이후 조선의 개화를 이끌어갈 주도적 세력을 형성한 것이었다. 이 만남의 과정은 매우 극적인 것이어서 여러 학자들에 의해 언급이 되어졌으며, 유동준(1993:15-23)은 이를 매우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첫 만남 이후 1873년에 유길준은 우연히 박규수를 다시 만나 「해국도지(海國圖志)」 한 짚을 건네받았으며, 세계를 알고 해외지식과 신학문에 관심을 두고 공부할 것을 권고 받았는데, 이 시기는 박규수가 1860년대에서 1870년에 이르러 실학에서 개화사상으로 전환함으로써 사상과 학문이 크게 변화를 겪었던 시기였다.

박규수는 일찍부터 지리적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원지동설을 주장하는 「상고도회문의례(尙古圖會文義例)」를 1826~1827년 사이에 완성하였다(김명호, 2008:261). 1840년대 말 1850년대 초에 이르는 시기에는 박규수의 사상과 학문에 점차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주로 복고적 예학연구에 집중하던 것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연구로 변화하였고, 이러한 흐름에서 지도와 천체 관측 기기도 제작하였다. 오상학(2018:169-171)에 따르면 박규수는 용강현령에서 부안현감으로 자리를 옮기는 1849년

에서 1850년 사이에 「동여도(東輿圖)」를 제작하였는데, 이 지도는 우리나라 전도로서 산줄기 중심의 산지 표현법을 더욱 발전시킨 것이었다. 그리고 1850년대 초 박규수는 고도 측정과 천체 관측을 하면서 간평의(簡平儀), 평혼의(平渾儀)와 같은 천문기기를 손수 제작하기도 하였으며, 지원지동설을 바탕으로 세계지리를 표시한 지구의에다 천문관측 기능을 첨가하여 지세의(地勢儀)를 독창적으로 만들었다.

박규수는 지세를 위한 「해국도지」를 이용하여 만들었는데, 지세의 용도를 설명하는 글로 작성한 「지세의명병서(地勢儀銘并序)」에 따르면, 종래의 지세는 천문을 관측하기 위해 제작되었지만, 그가 만든 지세는 세계 각국의 지리를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시각과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지구를 그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구라고 밝히고 있다(손형부, 1990:105; 김명호, 2008:162), 그리고 부속 관측 도구를 덧붙인, 이전 시기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것이었는데, 후에 김옥균(金玉均)을 비롯한 개화파의 세계인식을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오상학, 2018:154). 손형부(1990:105-106)에 의하면, 박규수의 지세의 제작은 지구 위의 세계를 알아야 한다는 의식의 전환이 일어난 것이며, 이전과는 달리 세계의 지리와 각국의 위치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던 커졌던 계기는 아편전쟁 등 서양의 침략행위와 서양 세력의 중국으로의 진출이었다.

오상학(2018)은 지세의가 제작된 것을 1852년 이후로 추정하였는데, 지세는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지세에 관한 그의 기록인 「지세의명병서」를 통해 모습을 그려볼 수밖에 없는데 그 모습은 다음과 같다.

지세는 등근 구면에 세계지도를 그린 지구의 부분과 부속 관측도구로 크게 구분할 수 있고, 박규수가 사용한 지도는 「해국도지」의 「지구정면배면전도(地球正背面全圖)」를 기초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즉 우선 경위선을 그린 다음 대륙과 해양, 지형 등을 표현한 위에 각지의 국가명을 기입하였고, 지명을 몇 가지 색으로 구분하여 표기했는데 흑색은 전체 명칭, 적색은 과거 명칭, 청색은 음역(音譯)된 서양어 명칭을 나타냈다. 그리고 간색(間色)으로는 서양의 각종 종교를 표시하였고, 적색 점으로 표시한 것은 중국 내지(內地), 적색 동그라미는 중국의 책봉 국가에 해당하는 번봉(藩封)을 나타내었다.

(오상학, 2018:193)

이렇게 보면 박규수의 지세에는 오늘날의 세계지도들 여러 가지 주제별로 별도로 그리지 않고, 지역 명칭의 변화, 종교, 국가의 상태까지 통합하는 형식으로 세계지도를 그려서 천문도와 결합한 매우 창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박규수가 지세의를 제작하던 시기는 1840년 벌어진 중국과 영국 간의 아편전쟁의 소식이 조선에 전해지면서 서양세력에 대한 위협을 서서히 느끼던 때였고, 이에 따라 그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시기이다. 박규수는 그러한 대응의 일환으로 세계의 지리, 각국의 위치와 세력판도, 종교 등에 대한 기본 지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지세의를 제작하였던 것이며(손형부, 1990:106), 이러한 박규수의 인식은 자신의 사랑방에서 키운 젊은 개화파 지식인에게 전달되었다.

2. 후쿠자와 유키치와 일본계몽기의 지리 지식

일본과의 수교의 출발점이 된 강화도조약을 1876년 체결한 이후, 조선의 수신사(修信使)가 일본을 다녀와 서양의 근대 문물과 제도를 받아들인 일본의 발달상을 보고하면서, 조선의 조정에서는 1881년 5월에 일본 문물 조사시찰단을 파견하였다. 유길준은 조사단인 신사유람단(紳士遊覽團)에 끼어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후 일본의 근대화의 결과물들인 일본의 번성한 산업과 경제, 그리고 도시들을 보고 심한 충격을 받았으며, 신문물 시찰이 끝난 뒤 일본에 남아 공부하기를 원하였다.

유길준은 일본의 개화 및 문명화의 태두인 후쿠자와 유키치를 만났으며, 민영익의 권유로 그가 경영하던 게이오의숙(慶應義塾, 오늘날의 게이오대학교)에 유정수(柳正秀)와 함께 1881년 5월 16일에 입학하였다. 약 1년 반 동안 영어, 국제법과 정치학 등 서구 근대학문과 신문물을 배우던 중 임오군란(壬午軍亂)이 일어나 급히 귀국을 요청한 민영익의 권고로 유학을 중단하고 1882년 12월에 귀국하여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의 주사로 국내 활동을 재개하였다(허동현, 2017:39).

유길준은 후쿠자와 유키치의 집에 기숙하면서 지도를 받았으므로 「서양사정(西洋事情)」, 「학문의 권장(學問のすすめ)」 등과 같은 후쿠자와 유키치의 저서도 읽었으며, 당시의 회고록에 의하면 허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 샤를 드 몽테스키외(Charles de Montesquieu), 알렉시스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 등의 사상을 소개하는 강의를 들었다고 한다(이광린, 1979:52). 그리

고 게이오의숙에서는 특별강연이 자주 열렸는데, 당시 일본 도쿄대학교(東京大学)에 초빙교수로 와 있었고 이후에 유길준을 미국에서 받아들인 진화론자인 미국인 에드워드 모스도 특별강연을 하였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막부 말(幕府末) 이후 천부인권론을 설파하고 일본의 근대화를 열어가던 계몽사상가였지만 유길준이 유학을 하던 시기에는 당시 최고조에 이르렀던 자유민권운동을 억압하는 현실적 국권론자, 사회진화론에 기초한 국가주의자들로 변화하고 있었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개화와 계몽을 위해 「서양사정」, 「학문의 권장」 등과 같은 중요한 서적들을 집필하였지만, 영국과 미국의 견학을 통하여 근대의 국민계몽과 세계의식의 형성에서 지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잘 인지하여 상당히 이른 시기에 지리 관련 서적들을 편역하여 발간하고 있었다. 유길준은 후쿠자와 유키치가 일반인들의 문명화를 유도하기 위해 서양에서 발간된 여러 지리서를 바탕으로 1869년에 「장중만국일람(掌中萬國一覽)」(1월), 「세계국진(世界國盡)」(10월) 2권의 지리서를 발간하였고, 이 서적들이 일본의 개화와 계몽에 미친 강력한 영향을 직접 목격하였다(박양신, 2008:53).

이러한 경험으로 유길준은 자신의 저서에서 그리고 조선의 개화와 계몽을 위해 쓴 「서유견문」에서도 지리 지식을 반영하였다. 일본 유학 후 한국에 돌아와 유길준이 집필한 「세계대세론(世界大勢論)」도 많은 지리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장중만국일람」이 11개의 주제별로 나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14개의 주제별로 나열적으로 기술하는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미국 유학 후 귀국하여 쓴 「서유견문」의 첫 두 개의 장과 마지막 두 개의 장은 후쿠자와 유키치처럼 계몽적 지리 지식을 담고자하였는데, 특히 마지막 장에서는 「장중만국일람」과 같이 세계의 문명도시를 다루었다.

그런데 후쿠자와 유키치는 두 차례 미국을 방문하고⁵⁾ 견학하는 과정에서 당시 구입한 지리교과서에 실려 있었던 문명개화의 단계에서 깊은 감명을 받고, 일본의 완전한 문명개화의 길을 제시하고 싶어 했다. 이에 대해 상세하게 연구한 Craig(2009:46-49)에 따르면, 후쿠자와 유키치가 1867년 두 번째의 미국 방문 시 뉴욕의 Appleton Book Store에서 *Mitchell's New School Geography*의 1866년판을 구입하였다고 한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이 책에서 다룬 문명발달 단계에 대한 내용을 자신이 쓴 책에서 소개하였던 것이다. 즉 후쿠자와 유키치는 「장중만국일

람」에서 “蠻野文明の別”이라는 주제에서 문명발달을 만 야(蠻野)와 문명(文明)으로 나누고, 이를 혼돈(渾沌)과 만야, 그리고 미개(未開)문명과 개화(開化)문명으로 다시 이등분하여 4개의 단계로 제시하였다.

Craig(2009:49-50)에 따르면, 후쿠자와 유키치는 Mitchell (Mitchell)의 책을 매우 충실하게 번역을 하였지만 몇 가지 변화를 주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Mitchell의 책에서는 사회발전 단계를 5단계로 제시된 것을, 후쿠자와 유키치는 지속적으로 Civilized stage와 Enlightened stage를 “문명개화(文明開化)”라는 하나의 단계로 결합하여 4개의 단계로만 열거하였으며, 일본 내 외국혐오자에 의한 살해 위협이 1869년까지도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Half-civilized”(반개화, 반문명)라고 특성을 부여한 국가들의 목록에서부터 중국은 그대로 두었으나 일본을 제거하는 등 변형이나 누락이 있었다. 1869년 같은 해 말에 후쿠자와 유키치는 「장중만국일람」을 바탕으로 일본 학생들을 위한 좀 더 긴 지리책인 「세계국진(世界國盡)」(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출판했다. 이 책은 *Mitchell's New School Geography*의 것을 대부분 가져왔고, *Cornell's High School Geography*의 신판에서 조금 가져왔는데, 여기서 유럽 편에서 문명발전단계를 설명하였다(Craig, 2009:50). 후쿠자와 유키치는 「세계국진」에서도 「장중만국일람」과 동일하게, 중국, 터키, 페르시아를 반개된 사회의 예로서 열거하면서 일본을 제외하였다.

변상숙(2013:60-61)에 따르면, 후쿠자와 유키치는 지리서들과 많은 지리 관련 저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가운데 「세계국진」⁶⁾은 후쿠자와 유키치의 저서 중에서도 가장 발행부수가 많은 책이고, 각종의 판본이나 위본(僞本)이 출판될 정도로 많은 독자층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이한섭(1999:187-188)은 이러한 국민계몽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던 세계지리서인 「세계국진」이 언어학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즉 일본어 한자의 중국식 표기가 중국음에 바탕을 둔 것이어서 일본인에게는 알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였는데, 후쿠자와 유키치는 「세계국진」에서 독자적인 한자표기를 시도하여 이 책의 총 지명 232개 중 60%에 해당하는 140개를 일본식으로 표기하였고, 이후 일본에서는 외국지명과 인명표기에 있어서 일본 독자의 표기방법을 늘려갔으며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일본식 표기법이 후일 한국어로 들어오게 되었다.(이한섭, 1999:188)

한편 후쿠자와 유키치는 그의 저서 「학문의 권장」에

서도 지리학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지리학이란 학문은 무형의 학문이 아니라 유형의 학문이라고 하였고, 지식과 견문을 넓히고 사물의 도리를 분별하여 인간으로서 직분을 아는데 목적이 있고(福澤諭吉, 1872; 남상영·사사가와 고이치 역, 2003), 문명의 정치를 돕고 무비의 결함을 보완하는데 유용하다고 쓰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후쿠자와 유키치가 설립한 게이오대학교에서 강조하는 학문의 목록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정광희, 1998:99), “지리는 지구의 자전, 산과들, 강과 바다의 구별, 세계 만국의 지명, 풍속, 인권이 같고 다른 점 등을 아는 학문이다. 자기가 태어난 그 나라를 천지 세계로 아는 태도는 다리를 갖고서도 걷지 않는 것과 같다. 따라서 지리서를 배우지 않는 자는 절름발이와 같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근대화를 주도한 후쿠자와 유키치는 문명개화에 지리 지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으며, 학교에서 지리 과목은 문명개화에 필요한 실학적 성격이 강해 일본의 근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변상숙, 2013:59-60).

당시 일제의 문부성은 일반 계몽서로서도 널리 읽힌 「세계국진」, 「지학사시(地學事始)」, 「여지지략(輿地誌略)」과 같은 지리 서적들을 학교에서 사용하도록 하였고, 사범학교에서 선진국의 지리교과서를 참고로 지리 학습을 위한 입문서·일본지리·세계지리 등의 3부작으로 「지리초보(地理初歩)」, 「일본지지략(日本地誌略)」, 「만국지지략(萬國地誌略)」으로 간행하여 지리교과서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였다(한철호, 2015:209). 후쿠자와 유키치의 지리서들을 비롯하여 일본의 계몽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지리서들과 그 목차를 대략적으로 제시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3. 미국 더머스쿨(Dummer Academy) 유학 시기 유길준과 지리

조선왕조가 1882년 미국과의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을 맺은 후 미국공사 루시어스 푸트(Lucius H. Foote)의 부임에 대한 답례로 미국에 파견한 보빙사(報聘使)의 정사(正使) 민영익의 수원으로, 유길준은 1883년 7월에 미국으로 갔다(허동현, 2017:40). 1883년 11월에 보빙사 일행들이 귀국한 후, 유길준은 일본 유학 시 스승이고 이미 자신의 아들을 맡긴 바 있던 후쿠자와 유키치의 주선으로 사회진화론자인 에드워드 모스와 연결

표 1. 일본 계몽기 초기의 주요 지리교과서들의 목차와 내용

「掌中萬國一覽」* (福澤諭吉 訳, 1869. 1月)	「世界國畫」** (福澤諭吉 訳, 1869. 10月)	「開知新編」 (橋爪貫一 纂, 1869. 夏)	「地學事始」 (松山棟菴 訳, 1870)	「輿地誌略」 (内田正雄 編訳, 1870-1877)
地球五大洲の分別 大洋の深淺大山の高低 世界中の人口 人種の論 <u>蠻野文明の別</u> *** 各國の言語 歐羅巴三帝十五王 歐羅巴五大國并亞 米利加合衆國 西洋各國鐵道の長さ 各國に金銀銅鐵 を産する多寡 世界大都會の經緯度	一の卷 亞細亞洲 發端 (世界人民の事) 亞細亞洲 二の卷 阿非利加洲 三の卷 歐羅巴洲 …… 문명단계론*** 六の卷 地理學の總論*** 天文の地理學 自然の地理學 人間の地理學	卷之一 地球の事 萬國地名の事 各國大都府の事 各國通商地名の事 和蘭國地賣買の事 英吉利國隨意兵の事 卷之二 佛蘭私國制の事 佛國地所賣買の事 英吉利國貧民救助の事 同國海軍士官 兵卒取立方の事 卷之三 佛國馬車之事 和蘭國馬車之事 …… 卷之十 葡國運上附の事, 葡國水先案内の事 英國土農工商差別の事	世界の狀と世界の動く事 世界外面廣表 世界區別並よ人種の事 亞細亞洲 支那帝國 ……	卷一 總論 地誌總說 天文部 地球形狀及自轉說 經度緯度及時刻差 地球五帶區分 地球黃道運行及四季變化 附錄 地理部 世界大別及五大洲幅員 地球表面形狀及區別 海水運動及大氣風 寒暑等畧說 附錄 邦制部 世界人口大略及人種區別 教法 衣食需用及開化等級*** 政治及國體區別 人種始及世界歷史 大義 亞細亞洲 日本

출처 : 福澤諭吉 訳, 1869a; 1869b; 橋爪貫一 纂, 1869; 松山棟菴 訳, 1870; 内田正雄 編訳, 1870-1877.

* 문명발달 단계를 별도의 항목으로 번역하여 4단계로 제시함(福澤諭吉 訳, 1869b:7-9).

** 문명발달 단계를 제3권의 구라과주의 도입부에 번역하여 제시함(福澤諭吉 訳, 1869a:7-9).

*** 밑줄 친 부분은 문명단계론을 다룬 부분임.

되었다. 유길준은 그의 집에 머물며 영어를 익혔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영어 공부를 한 후 1884년 6월 미국 동부의 명문 대학인 하버드대학교 등으로 많은 진학생을 보내는 대학 진학 예비학교이며 기숙학교인 더머스쿨(Governor Dummer Academy)에 입학했다.

유길준이 더머스쿨에서 공부한 내용은 더머스쿨의 홈페이지(The Governor's Academy 홈페이지)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Yu stayed state's side longer than some of the other delegates, eventually enrolling at The Governor's Academy for the first and second terms of the 1884-1885 academic year. At the time, students followed a standard six year course of study including Latin, Greek, Geography, Mathematics, French, Writing, and various sciences. While there is no record of Yu's specific course

of study...

Yu(유길준)은 한국의 다른 대표단의 일행보다 더 길게 머물렀으며, 결국 1884~1885학년도의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학기에 가버너 아카데미에 등록하였다. 당시에 학생들은 표준적인 6년 학습코스를 따랐는데, 여기에는 라틴어, 희랍어, 지리, 수학, 불어, 쓰기 그리고 다양한 과학들을 배웠다. 유길준의 과목의 학습에 대한 별도의 상세한 기록은 없지만 …….

(The Governor's Academy 홈페이지)

유동준(1993:103-104) 또한 이 과정을 상세히 분석하여, 모스와 친분이 두터운 퍼킨스 교장을 비롯하여 타운스(G. W. Towns), 우드베리(A. W. Woodbury) 등으로부터 라틴어, 대수, 지리, 불어, 영어, 부기 등 다양한 과목을 배웠다고 기술하였다. 유길준이 더머스쿨에서 공부를 하던 중 에드워드 모스에게 보낸 아래의 편지를 보면, 지리 과목을 공부한 내용이 보다 상세하게 나오는데,

지진, 간헐천뿐만 아니라 대륙의 기복형태의 배열까지 당시로서는 매우 전문적인 내용을 공부하였다고 볼 수 있다.

Byfield Nov. 3th 1884

Dummer Academy

Dear Prof. E. S. Morse,

I have received your kind note, and the letter which was sent by my father containing interesting matter... I had an examination on the theories and consequences of the Volcanoes, earthquakes, geysers, and arrangement of relief forms of continents, got 94 percent and twenty questions of Arithematic, 100 percent.

Please believe me yours faithfully

You Keel June

to Prof Edw. S. Morse

1884년 11월 3일

더머스쿨

친애하는 에드워드 모스 교수님께,

저는 화산, 지진, 간헐천에 대한 이론과 그 결과들, 그리고 대륙의 기복 형태의 배열에 대한 시험을 보아서 94점, 20개 문제로 된 수학에서 100점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충직한

유길준 올림

에드워드 모스 교수님께

(Lee, 1990:103)

그런데, 1884년 12월 4일 갑신정변이 일어나 실패로 돌아가는 등 급박한 국내 정세의 변화와 유학비용 조달의 어려움 속에서 고종의 귀국 종용으로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1885년 9월에 귀국길에 올라 12월에 한국으로 돌아왔으며,⁸⁾ 귀국 후에 바로 체포되어 포도대장 한규설(韓圭畵)의 가택을 거쳐 박규수의 별장인 취운정에서 1892년까지 7년간의 연금생활을 하였다. 이 연금기간의 초기에 유길준은 「서유견문」을 집필하였다.

약 2년간의 미국 생활 동안 유길준은 서구문명을 배우고 견문을 보다 넓히는 기회를 가졌으며, 그가 본 미국은 「서유견문」 19편의 미국의 도시 편에서 상세히 기술하는 등 그의 저술에도 영향을 주었다. 당시에 미국에서 배운 내용들도 유길준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IV장의 2절에서 다룬다.

유길준이 진학하려고 했던 하버드대학교에서는 윌리엄 데이비스(William M. Davis)가 1878년부터 자연지리학을 강의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는 하버드대학교 지질학과 교수인 Shaler 교수에게 배워, 1885년에는 하버드대학교의 자연지리학 교수로 초빙되었다. 이는 독일의 대학에서 지리학과와 설치나 지리학 교수의 초빙보다는 늦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사범대학(College of Education)에서 지리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이보다 훨씬 빠른데, 컬럼비아대학교(Columbia University)에서 1784년부터 1795년 사이에 존 그로스(John D. Gross)에 의해, 1812년까지는 존 켈프(John Kemp)에 의해 교수되었으며, 이에 따라 중등학교에서 지리는 상당히 일찍부터 가르쳐 왔다.

1870년대와 1880년대 미국의 중등학교 지리교과서에서는 다른 인종, 국가 그리고 대륙에 따라 성취된 “진보”의 수준에 따라 세계를 조직하였는데, 세계를 자연환경 즉 지형과 기온에 따라 나누어 환경결정론적인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유길준이 유학할 당시 미국의 일반학교에서 사용하던 지리교과서들 중에서 가장 인기가 높았던 것은 Samuel Augustus Mitchell의 *A System of Modern Geography*였다. Mitchell의 교과서는 1839년에서 1882년까지 거의 계속 개정되고 재발행되었는데, 이는 그 자체가 19세기 교과서들의 상대적인 일관성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했다. 그 당시 Mitchell은 지리를 자연 세계와 인문 세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으며, 한편으로 자연경관과 그 특성을 기술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상이한 인종, 그들의 언어, 정부, 예술 그리고 문명, 학습, 종교들을 설명하였다(Schulten, 2001:94-95).

후쿠자와 유키치가 미국에 갔던 1870년대나 유길준이 미국 유학을 했던 1880년 당시의 지리교과서의 구조를 자연지리와 인문지리를 모두 포함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두 가지의 유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하나의 유형은 일반적인 중등학교의 지리교과서들로 “Natural or Physical Geography, Mathematical or Astronomical Geography, Civil or Political Geography”의 3분야로 나누어서 지리 내용을 다루고, 마지막 부분에 아메리카 대륙을 간략하게 다루는 형태였다. 당시 가장 많이 채택되었던 Mitchell, Cornell 등의 교과서를 보면,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Mitchell(1878)의 *A System of Modern Geography*의 목차는 표 2와 같다.

표 2. Mitchell(1878)의 *A System of Modern Geography*의 목차

목차의 내용
Principles and Definitions
Natural or Physical Geography
Divisions of the Land
Divisions of the Water
Astronomical or Mathematical Geography
Imaginary lines used on Globes, Maps
The Zones
Maps
Civil or Political Geography
The Races of Mankind
The State of Society*
Political Divisions
Forms of Government
Varieties of Language
The Earth (Western and Eastern Hemispheres)
North America
Danish America

출처 : Mitchell, 1878.

* 위의 “시민 및 정치지리(Civil or Political Geography)”장의 “사회의 상태(The State of Society)”라는 절에서 사회 및 국가의 상태는 문명과 야만의 두 가지로 나누고, Savage(야만), Barbarous(미개), Half-Civilized(반개), Civilized(개화), and Enlightened(문명)의 5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기술하였음.

다른 하나의 유형은 상급학교 진학에 주로 초점을 두어 동부의 명문 사립대학 진학을 위한 예비학교들이 가르친 자연지리 중심의 지리교과서이다. 즉 당대의 자연지리(physical geography)는 오늘날의 계통지리(systematic geography)라고 부르는 것을 총괄적으로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그것은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포함시켰던 것이라고 Warntz는 지적하였다(Warntz, 1964:145).

이 시기에 사용된 자연지리교과서는 지구 및 육지부, 물, 기상, 유기체(동식물과 인간)의 4~5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내용을 다루었으며, 마지막 부분에 인류와 사회 및 정치생활을 설명하는 형식이었다. 대학 예비과정에서 사용한 이러한 형태의 교과서들 중에서, 1800년대 중반부터 인기가 있었던 Warren의 자연지리교과서가 있다. Warren의 책은 일본에서 개인 저자와 문부성이 번역하여 출판하기도 하였는데, 그 목차는 표 3과 같다.

19세기 미국의 중등학교 지리교과서는 육지와 바다, 기후, 지질 등 자연지리 내용이 중심을 이루었고, 역사적 사건 그리고 ‘문명의 특성’이 첨가되어 분류의 구도를 따라서 특히 암기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었다. 미국의 지리교과서에서 문명진보의 단계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으로

빠짐없이 실렸고, 일본 개화기에 이들 교과서들이 번역되면서 여기에 실린 문명발달 단계론은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논제가 되었다. 이러한 지리 과목의 내용의 포괄성과 중요도로 인하여 19세기 미국에서는 지리가 역사보다 흔하게 가르쳐졌는데, Schulten(2001:92-94)에 따르면, 1880년대 중등학교의 지리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독립된 교과로서 매우 인기가 있었는데 그 상황은 다음과 같다.

1880년 오하이오 주에서 31,000명만이 미국 역사를 들었는데, 이에 비해 267,000명이 지리를 들었다. 사실 역사가들이 지리가 독립된 교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국제적 추세와 맥락 속에서 인종적, 사회적 그리고 종교적 주제들을 다룸으로써 좋은 역사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 넓이라는 측면에서 지리는 19세기 교육과정에서 중심적이었다. 1885년 저지 시티 고등학교(Jersey City High School)의 입학시험은 학생들에게 지리, 대수, 산수, 역사 그리고 문법이라는 5개 과목을 치렀다. 첫 번째 과목인 지리에서는 지구의 축, 적도, 아시아,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의 주요 산맥, 국가의 수도, 뉴저지를 둘러싼 주들, 러시아를 둘러싼 국가들, 지구 전체에 걸친 커피의 생산지와 같은 것을 확인하려고 하였다.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의 웨스트 체스터 고등학교(West Chester High School)는 1872년 졸업학년에서 산수, 기하, 철학, 역사 그리고 지리의 시험을 보았다.

(Schulten, 2001:94)

III. 「서유견문」의 세계지리 내용의 구성과 기존의 논의

1. 「서유견문」의 세계지리 내용의 구성

「서유견문」은 20개의 편으로 구성되어 편명은 제시되지 않지만, 세계지리 내용은 6개의 편에 걸쳐서 나타난다. 즉 제1편의 지구개론과 육지부, 제2편의 해양부와 인류 및 산물, 그리고 제13편의 소항목 “學業하는 條目”의 지리학, 제18편의 소항목 “도시의 排鋪, 그리고 제19편과 제20편의 미국과 유럽의 도시들을 연속적으로 다루고 있다.

먼저 제1편은 먼저 “지구세계의 개론”에서 지구 전체

표 3. Warren(1860)의 자연지리교과서와 일본 번역본들의 목차

Physical Geography (Warren, 1860)	「格物地誌」 (松木駒次郎 訳, 1876)	「地理論略」 (文部省 翻刻, 1879)
INTRODUCTORY — Definitions PART I. GEOLOGY I. General Structure of the Land ... V. Volcanoes and Earthquakes PART II. HYDROGRAPHY I. Springs ... V. Oceanic Movements: Waves, Tides, and Currents PART III. METEOROLOGY I. The Atmosphere ... VI. Electrical and Optical Phenomena PART IV. ORGANIC LIFE I. Botanical Geography II. Zoological Geography III. Ethnography PART V. PHYSICAL GEOGRAPHY OF THE UNITED STATES I. Geographical Position and Extent: Peninsulas, Capes, and Island ... VI. Mineralogy	第一編 總論 陸ノ部 第一章 地ノ營成 第二章 陸地ノ分配 ... 第五章 火山質顯象 第二編 水ノ部 第一章 泉 第二章 河 第三章 河ノ分配 第四章 湖 第五章 大洋 第六章 海水ノ運動 第三編 大氣ノ部 第一章 大氣ノ性質 ... 第五章 氣候 第六章 電氣及ヒ視覺 第四編 有機體ノ部 第一章 植物地理 第二章 動物地理 第三章 人種論 續編 合衆國格物地理 第一章 位置及ヒ幅員 ○半島嶼嶼 及ヒ岬 第二章 地形 ... 第六章 鑛物論	總論 第一篇 地質 大陸 島 山谷 高原 平野 火山 地震 第二篇 水理 泉 川 洋 洋動 浪動 潮 洋流 第三篇 氣象 大氣 溫 風 航海 大氣ノ溫 露雨, 霜雲 氣候 電氣及觀象 第四篇 有機體 植物 動物 人種

출처 : Warren, 1860; 松木駒次郎 訳, 1876; 文部省 翻刻, 1879.

에 대한 총론적인 내용을 다룬다. 이는 15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항목별 주요내용을 보면 '태양계→태양→지구'로 전개되고, 지구에서는 지구의 움직임부터 시작하여 '자전과 공전→위도와 경도→공기의 구성, 교환, 대기순환과 기상→지구중심부와 화산, 지진, 지중열'에 이르기까지 지구의 움직임, 지구의 지대 구분, 공기, 지구 내부의 열의 순서로 매우 자세한 지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표 4 참조), 미국에서 배운 자연지리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다.

이처럼 제1편의 서두에 지구세계 전체를 다룬 다음, 육지의 세계를 다루고, 제2편에서는 물의 세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세계를 다룬다. 이는 앞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유길준이 미국에 유학하던 시기에 공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연지리교과서의 내용 전개 구조와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다. 즉 육지세계는 '지구→6대주→방국(국가)→산'으로 점점 큰 규모에서 작은 규모로 축소하면서 내용을 다루며, 마찬가지로 물의 세계도 '바다→강→호수'로 역시 큰 규모에서 작은 규모로 zoom-in하면서 다루어진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인간세계에 있어서 인류의 다양함과 인간이 생산한 산물의 국가별 다양함을 제시하면서 마무리 한다.

그리고 유길준은 제13편 4항 "學業하는 條目"에서 제시한 19개 학문 중 13번째로 지리학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표 4. 제1편과 제2편의 항목별 내용

제1편	지구세계의 개론	1. 지구와 태양 및 태양의 8개 행성 2. 태양 3. 일년, 지구의 자전과 공전 4. 천원지방설과 지구구형론, 일식과 월식 5. 위도 6. 경도 7. 회귀선과 위도별 밤과 낮의 길이 8. 적도남북의 해의 길이 9. 공기의 구성(산소, 탄소(질소), 탄소, 습기 등)	10. 공기와 동·식물, 산소, 탄산가스의 교환(호흡) 11. 지구 공기의 상승과 하강, 비, 우박, 눈, 구름, 안개, 노을, 서리, 이슬, 천둥, 번개 등 12. 지구중심부와 용암 13. 화산·화산원리, 서인도 등 대표적 화산 설명 14. 지진·원인, 종류, 현상 15. 지중열기의 분출, 분천, 온천
	6대주의 구역	동반구: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4대주 서반구: 북미와 남미 2대주	
	방국의 구별	대륙별 국가에 대한 설명	
	세계의 산	대륙별 일등산과 이등산	
	세계의 바다	5대양: 대서양, 태평양, 인도해, 북극해, 남극해	
제2편	세계의 강(강하)	땅속으로 스며드는 강 -6대주별로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강 -북극해,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으로 흘러들어가는 강 대륙별 강	
	세계의 호수	대륙별 호수	
	세계의 인종	블루멘바흐 구분(황색인, 백색인, 흑색인, 회색인, 적색인)	
	세계의 물산	자연이 만들어 낸 것(천연자원)과 인간이 만들어 낸 것(생산품) 대륙별 국가별 물산(천연자원), 수출품과 수입품 자원과 국가의 부강과의 관계	

지리학: 이 학문은 지구가 나타내고 있는 모한 이치를 배우는 공부다. 이 학문은 조목이 아주 많지만, 헛된 풍수설로 사람의 길흉을 점치는 방법은 아니다. 지구의 크기와 무게를 측정하고, 지구가 반드시 둥글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한다. 또 태양을 따라다니며 사철과 밤낮이 바뀌는 이치와, 달이 따라다니며 삭망으로 찼다가 기울어지는 이치, 그리고 유성과의 관계를 크기·거리·무게를 따져서 밝힌다. 열대와 한대의 기후, 화산·온천, 지진·조석의 연유와 바람·구름·비·이슬·서리·눈 및 번개의 원인 그리고 바닷물이 만들어졌다 없어지는 원인도 자세히 밝혀낸다. 또 흙의 간격과 바윗돌의 층을 살펴 지구가 변성된 연대를 추정하며, 땅속 바위에 붙어있는 풀·나무·새·짐승·벌레·물고기의 모습과 석탄의 종류에 따라 그 변성된 연대를 논하기도 한다. 이 학문도 또한 학자로서 일가를 이룰 만하다.

(유길준, 허경진 역, 2004:373-374)

위에서 지리학에 대해 정의를 내린 부분의 내용은 앞에서 언급한 미국의 자연지리교과서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시한 것이며,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유견문」

의 제1편의 첫째 주제인 “지구세계의 개론”에서 항목별로 차례대로 다루어주고 있다.

그리고 제18편의 “도시의 排鋪”의 항목에서 서구의 선진문명의 발달상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도시를 설명하고 있다. 잘 구획된 도시의 구조와 함께 도시의 근대화된 조직과 기구, 사회기반시설 등을 상세히 설명한 다음, 그와 같은 발달상을 보여주는 서구의 도시들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19편과 제20편에 걸쳐서 제시하고 있다.

제19편과 제20편은 서구문명을 꽃피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도시를 가시적인 경관요소 즉 랜드마크(landmark)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 제19편에서는 자신이 보빙사의 일원으로 방문하는 길에 살펴보고 직접 유학을 하였던 미국의 도시들과 서구의 산업화를 이끌어가는 영국의 도시들을 상세하게 다루고, 제20편에서는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벨기에와 같은 산업화되고 부강한 나라들의 도시 총 37개를 차례로 소개하였다.

유길준은 서양의 학술에서 실용과 효용을 강조하여 ‘인생의 편리한 도리’이고 학술 연구의 취지는 이용후생(利用厚生)에 있고 이를 통해 덕을 바르게 하는 데 있다

고 하였는데, 지리 지식이 바로 이용후생과 덕을 펼치는 취지에 적합한 지식으로 보았던 것이다(김현주, 2004:598).

2. 「서유견문」의 세계지리 내용에 대한 기존의 논의

1) 제1편과 제2편의 세계지리 내용

유길준의 저작 중 세계지리를 다룬 것으로는 「서유견문」 이전에 쓴 「세계대세론」이 있지만, 일본에 이어 미국까지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쓴 「서유견문」의 도입부와 마지막 부분에 위치한 지리 내용은 「세계대세론」보다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세계지리를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열강들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실태도 설명하였다(이광린, 1979:69).

유길준은 「세계대세론」에서는 전반부의 세계의 다양성과 차이성을 6개의 항목에 걸쳐서 “殊異” 즉 세계가 이렇게 다르고 다양하다는 것을 기술한 다음, 세계 역사의 보편적 흐름과 지구 전체의 객관적인 모습과 그에 따른 자연현상들을 제시하여 인류문명과 역사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이해하는 기초를 제공하려 했다. 그런데 「서유견문」에서는 지구에 대한 지식을 좀 더 자세히 분류하면서 지구의 자연현상에 대한 체계적, 객관적 이해라는 바탕 위에 지구 위에서의 인간의 삶의 기초로서 인류의 다양성과 인간사회의 물질, 경제적 토대에 대한 지식들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일본에서 유학하고 돌아와서 쓴 「세계대세론」보다 일본에 이어 미국까지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쓴 「서유견문」에서는 산, 강, 바다, 나라 등의 이름 그리고 인종, 제도의 명칭까지도 영어발음을 정확히 표기하면서 보다 상세한 설명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이광린, 1979:69).

이광린(1979)에 따르면, 「서유견문」의 서론적인 1장과 2장에 해당 부분에 대해 당시로서는 개화를 위한 기초적인 지식을 다룬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지식을 먼저 주지 않고서는 서양의 문물제도를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며, 유길준 자신만 하더라도 박규수의 권고로 세계지리서인 위원(魏源)의 「해국도지」를 읽음으로써 바깥 세계에 눈을 뜰 수 있었지만, 실상을 모르는 국민들에게 세계지리 관련 기초 지식을 사전에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초보적인 지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당시의 폐쇄적인 동양과 조선의 인식의 틀을 깨는 것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서양

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인종은 어떠한가, 산물 중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에 대한 지식 즉 종합적인 지리 지식을 먼저 주려고 하였던 것이었다(이광린, 1979:69).

김현주(2004:602-603)는 「서유견문」의 제1편과 제2편의 지리학의 표상방식의 핵심은 지구라는 자연적 대상을 기술하는 방법으로서 “분석”과 개개의 대상들, 즉 산, 강, 호수 등을 서술하는 방법으로서 “분류”이며, 이는 수량적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전통적인 분류와는 차별화되는 요소였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과 서술에서의 규칙성은 전체를 부분들로 분할하고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나아가는 분석인데, 1편에서 ‘태양계→지구→동·서 반구→6대주→국가→산’으로 진행하고 2편에서 ‘대양→강→호수→인종과 물산’으로 진행하여, 대분류에서 소분류로 점차적으로 하강하는 구조를 가진다고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이러한 지리학 내용의 표상방식은 매우 중요한 관념을 형성하는 장치인 셈인데, 이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서유견문」의 제1편과 제2편의 목표는 지구의 자연적 환경에 대한 ‘과학적’ 이해인데, 이는 근대 천문·지리학의 표상, 특히 지구설은 지구의 자연적 세계에 대한 표상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며, 이러한 지구설의 수용은 ‘지표면의 어느 곳도 중심일 수 없다’는 관념과 ‘지구상의 어느 국가도 중심일 수 없다’는 관념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김현주, 2004:595)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 김현주(2004:596)는 「서유견문」에서 지리 내용을 다루는 방식을 근대 지리학과 근대 정치학의 중심화와 탈중심화의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즉 근대 지리학이 생성해내는 지구에 대한 지리적 표상은 근대 국제정치학이 생성해내는 세계의 정치적 표상과 일치하는데, 탈중심화된 지구라는 표상은 탈중심화된 국제관계라는 표상과 일치하는 것이고, 탈중심화는 새로운 중심화를 가져와 중심의 해체는 새로운 중심, 곧 새로운 주체의 형성하는 것이었으므로, 새로운 분석 단위가 근대국가가 됨으로써 국가를 분석 단위로 하는 방제지리⁹⁾가 등장하였다고 해석하였다.

이를 통해 유길준은 근대적 의미의 ‘국가’를 만들어내는 과정과 동시에 ‘국민’ 만들기를 시도하였는데, 그것은

근대서구의 세계 표상인 세계지도와 만국공법을 수용함으로써 그리고 그러한 표상이 전제하고 있는 국가주의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조선의 독립과 자율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김현주, 2004:598).

장인성(2017:33-34)도 「서유견문」의 제1편과 제2편이 태양계와 지구에 관한 자연과학적 설명, 그리고 세계지리에 관해 서술함으로써 지구 세계의 과학적 재구성을 시도하였으며, 동아시아에서 지구에 대한 지식과 세계지리는 근대적 계몽의 조건이었으며, 이것이 천원지방설(天圓地方說)과 중화세계관(中華世界觀)을 바꿀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장인성은 1편과 2편에 걸친 지구 세계의 재구성은 구획, 분류, 배열과 같은 핵심요소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체에서 땅 그리고 인간으로 하강하며, 대(大)에서 소(小)로 좁혀지며, 이렇게 좁혀지는 과정에서 태양계의 형성, 지구세계의 육지와 바다, 인간세계의 국가, 인종, 물산 등은 대소, 등급, 차이에 따른 구획(구별)과 분류를 통해 배열된다. 유길준의 지구세계의 과학적 재구성(분류, 배열)을 통해 사물의 수치화, 통계화는 비교의 관점을 유발하고 구획과 분류를 통해 질서를 제공하고, 독자들에게 지구세계에 관한 새로운 상상력을 유발하고 근대지식의 세계로 이끌어 간다고 평가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제1편에서는 지구과학적 측면에서 세계의 과학화(분류와 배열)를 시도하고 땅과 관련된 대륙, 방국, 산의 정상을 소개하고, 제2편은 물과 관련된 형상(바다, 강, 호수)과 땅을 살아가는 인종, 그리고 인간이 영위하는 물산을 분류하고 구별한다.

(장인성, 2017:132)

지구의 과학적 구획에 이어 위도, 경도라는 선과 대륙을 통해 지상세계의 분류를 시도한다. 지구를 동반구와 서반구로 구획하고, 동반구에는 아시아 주, 유럽 주, 아프리카 주, 오세아니아 주를, 서반구에는 북아메리카 주, 남아메리카 주를 배치하고, 하늘과 땅이 천체에서 지구로 하강하는 식으로 조감되었듯이, 지상세계의 구획과 구별도 '지구→동, 서반구→6대주→방국'의 순으로 하강하고 있다. 이러한 구획과 분류는 세계적 시야가 성립해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세계적 시야에서 방국을 인지할 여지를

제공할 것이다. 세계지리 후반부인 제2편에서 물의 세계를 다루고 나면, 인간세계로 들어간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부분에서는 인간에 대한 인류학적 분류와 설명을 하고, 정부, 조세, 교육, 법, 화폐, 정치, 학습과 학문, 그리고 무역과 국제관계를 설명한 뒤 개화에 대해 기술한다.

(장인성, 2017:165)

한편, 앞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지리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개화의 방향론이자 문명발달론에 대한 논의는 후쿠자와 유키치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장중만국일람」(1869)에서 미국의 Mitchell의 지리교과서에서 실린 5단계를 4단계로 줄여 혼돈, 만야, 미개, 개화로 제시하였다. 이후 그는 「세계구진」에도 이 내용을 실었으며, 이후 「문명론의 개략(文明論の概略)」에서는 야만, 반개, 문명의 3단계로 수정하였다. Mitchell, Cornell 등의 미국 중등학교 지리교과서에 많이 다루었던 문명단계론(文明段階論)은, 일본에서 미국의 지리교과서를 번역, 편역하여 국민계몽을 위해 많은 서적들을 펴내고 있었으므로 이들 책 속에도 포함되었다. 후쿠자와 유키치의 것과 유사하게 우치다 마사오(内田正雄) 또한 1869년 「여지지략」에서 만이(蠻夷), 미개(未開), 반개(半開), 문명개화(文明開化)라는 네 단계의 문명단계론을 실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유길준은 후쿠자와 유키치의 서적 등을 바탕으로 조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서유견문」에서 미개화, 반개화, 개화의 3단계 발전단계론을 제시하였다.

2) 제19편과 제20편의 '세계의 도시' 관련 내용의 전거

「서유견문」의 지리 관련내용은 제1, 2편과 제19, 20편에 집중되어 있는데, 「서유견문」의 제19, 20편의 경우 서양 8개국 37개 도시를 소개하는 인문지리적 저술로 유길준이 미국 유학에서 귀국하는 길에 유럽의 주요 도시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리고 유길준이 서양 8개국을 모두 여행하였는지에 관한 논란과 함께, 19편과 20편의 전거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주요한 참고문헌이 후쿠자와 유키치를 비롯한 일본의 사절단이 구미지역을 방문 후 기록으로 남겨놓은 「미구회람실기(米歐回覽實記)」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서명일(2017:97-101)의 연구에 의하면 경비문제 등으로 유럽대륙의 도시를 들르지 않고 런던에

서 일본을 거쳐 바로 귀국하였기 때문에 귀국하는 중 유럽을 여행하면서 견문한 내용이 아니었으며, 그 전거도 「미구회람실기」가 아닌 「만국명소도회(萬國名所圖繪)」라고 밝혀졌다.

그동안 일본에서 荒山正彦(2013)¹⁰⁾이 「만국명소도회」와 「미구회람실기」의 내용을 비교하는 연구를 하였고, 국내에서 박성희(2013)는 「특명전권대사 미구회람실기(特命全權大使 米歐回覽實記)」에 대한 논문에서 이 자료와 후쿠자와 유키치의 자료를 비교·분석하였고, 최근 서명일(2017)은 「만국명소도회」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였다.

서명일(2017)에 따르면, 유길준은 국내사정이 급변하여 미국 유학을 끝내고 귀국하는 길에 일본을 들러 개화파 인사들도 만났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일본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아오키 쓰네사부로(青木恒三郎)가 편찬한 세계여행 안내서 「만국명소도회」를 구입한 것이었고, 이를 참고하여 제19편과 제20편의 서구의 도시들을 소개한 것이었다. 즉 수개월에 걸쳐 유럽을 여행하였으리라는 추정과 달리, 유길준은 자신의 동지였던 갑신정변의 주역들이 처형되는 등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내 정세와 관련되어 유럽을 여행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미국의 도시에서만 자신의 경험적 서술이 나타날 뿐 유럽에 대한 서술은 「만국명소도회」의 전역(傳譯)에 가까웠다. 서명일(2017:102-103)은 두 책의 목차의 비교를 통해 국가와 도시의 대부분일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만국명소도회」는 1~3권에 걸쳐 총 9개국 40개 도시를 소개하고 있고 유길준은 8개국 37개 도시를 반영하였는데, 두 책은 국가 및 도시의 구성, 도시의 배치 순서와 소개 항목까지 대부분 일치하며, 영국의 런던에서 벨기에의 앤트워프(Antwerp)까지 31개 도시에서 대한 서술은 거의 모든 내용을 「만국명소도회」에 의존하고 있다.

「만국명소도회」는 5만부가 판매된 베스트셀러였는데, 유길준이 귀국할 당시(1885년 9~12월)인 1885년에 1권부터 순차적으로 일본에서 발간되고 있었는데, 모든 권이 전질로 출판된 것은 아니어서 유길준은 제1~제3권을 참고해서 서양도시를 소개하였던 것이다(장인성, 2017:25).

그런데, 유길준의 직접 방문 여부나 당시 유길준의 인식에 따라 도시들은 상세하게 기술하거나 생략되었고, 소개하는 순서도 달라졌다. 미국의 경우, 「만국명소도회」를 보면 일본의 시찰단이 미국에서 시찰한 순서에 따라

서에서 동으로 가면서 기술하는데 비해, 유길준은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부터 기술을 시작한다. 그리고 영국의 런던을 보면 유길준은 “1. 런던의 개요 2. 왕궁 3. 국회의사당 -국회의 구성 4. 템즈강 -런던교-터널 5. 켄싱턴(Kensington)박물관, 박람회와 공업 6. 수정궁 7. 예배당-세인트폴성당, 웨스트민스터사원 8. 공원 9. 관청 -해군성, 육군성, 탁지부, 시설통계 -예배당, 공립학교, 사립학교, 병원, 빈민수용소, 관청, 감옥, 극장, 회사, 신문사”의 순서로 기술하고 있는데, 「만국명소도회」에 기술된 국회와 하원에 대한 부분에 있는 노예무역 부분을 생략하였으며, 세계박람회가 열렸던 세계적인 장소였던 크리스털팰리스(Crystal Palace, 수정궁)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많이 축소하였다.

또한 유길준은 「서유견문」의 19편과 20편의 맨 마지막 부분을 구성하면서, 후쿠자와 유키치의 「장중만국일람」의 마지막 주제로 등장하는 서구 근대화의 상징성인 세계의 대도시 관련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1편에서 대륙별 국가 소개와 짝을 이루어, 개화되고 근대화된 서구의 국가들의 대도시들의 발전된 문명상을 마지막 부분에서 소개하고 싶었을 수도 있다. 실제로 유길준은 국가별 도시 소개의 순서를 「만국명소도회」의 소개 순서와 다르게 바꾸었다. 「만국명소도회」에서 권을 달리 하여 분리되어 있던 미국과 영국을 같은 19편 속으로 묶었으며, 20편에서도 산업혁명 후의 산업제국주의 국가들을 우선하여 프랑스, 독일과 같은 나라들을 앞쪽의 순서로 가져오고, 과거 상업제국주의 국가들인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을 뒤쪽의 순서로 배치하여 소개하고 있다.

IV. 「서유견문」의 세계지리 내용의 구성에 대한 분석

1. 일본의 계몽기 지리교과서와 「서유견문」의 세계지리 내용의 구성

일본의 계몽기에 세계에 대한 인식을 육성하기 위해 만국지리(세계지리)를 가르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당시 일반계몽서로서도 가장 널리 읽힌 지리서로는 「세계국진」(1869), 「지학사시(地學事始)」(1870), 「여지지략」(1870) 등이 있었고, 앞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에 앞서

표 5. 일본 계몽기의 주요 번역지리서

「萬國地理訓蒙 二編 上」 (西村恒方 訳, 1872) Cornell(1860)*	「萬國地理啓蒙」 (望月誠 訳, 1873) Goldsmith(1868)*	「輿地小學」 (深間內基 訳, 1874) Hews, Mitchell, Goldsmith(1870)*	「萬國地理誌」 (順川賢久 訳, 1876) Mitchell(1876)* ; Goldsmith(1876)*	「萬國地誌階梯」 (松村精一朗 訳, 1886) Mitchell(1878)*
一編 引導篇 第一教 第二教 第三教 五大洲總說記 第四教 亞細亞洲 帝國日本 帝國支那 二編 地球略論 空氣の事 海陸の分別 世界人種の論 亞米利加	地誌總論 地球形狀及廣袤論 地理ノ名解 水土命名ノ論 陸體ノ部 大洲 島嶼 半嶋 地峽 海濱 海角 岬 水體ノ部 大洋 海 海湾 大灣 海峽 湖水 江河 陸地區別及形狀論 東大陸 西大陸 歐羅巴洲	卷之一 總論 天文ノ部 地球ノ形體 帶區別 世界ノ大區並ノ部 海陸ノ名義 邦制ノ部 小説 人種論 生活及ヒ開化ノ等級 國郡ノ區別 政體ノ區別 國語ノ區別 教法ノ區別 人類ノ始及ヒ世界 歷 史ノ大意 亞細亞洲 卷之二 亞細亞洲 卷之七 南北亞墨利加洲	第一編 地球形狀論 地球方位論 地球自轉及軌道運行論 地球圈線論 經度緯度及五帶論 水陸區別 地誌大別 世界人種論 人民開化等級 正體區別 第二編 亞細亞洲 支那	地理學ノ原由及定說 水陸ノ區分 人種ノ區別 大洲ノ區劃 政體 教門 地球ノ形狀及運動 經緯度 氣候及ヒ物産 動物 植物 鑛物 東半球 亞西亞大洲 日本帝國

출처 : 西村恒方 訳, 1872; 望月誠 訳, 1873; 深間內基 訳, 1874; 順川賢久 訳, 1876; 精一朗 訳, 1886.

* 원저자(출간연도)를 나타냄.

「장중만국일람」(1869.1)과 「개지신편」(橋爪貫一 纂, 1869.夏)이 출판되었으며 지구, 지명, 도시, 무역 등에 이르기까지 주제별로 지리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유길준은 일본 유학 시 후쿠자와 유키치의 집에서 기숙을 하면서 공부를 하였으므로, 무엇보다도 후쿠자와 유키치의 저서인 「장중만국일람」과 「세계국진」이 일본의 개화기시대에 수행했던 중요한 역할과 의미 그리고 내용까지 상세히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1869년 초에 「장중만국일람」을 쓰고, 같은 해 10월에 일본 개화기에 가장 인기가 높았던 「세계국진」을 출판한다. 「장중만국일람」을 보면, “지구오대양→대양→인구→인종→문명의 단계→언어”의 주제별로 다루어진 다음, 유럽의 3제 15왕 그리고 미국을 차례대로 지역적으로 설명하고, 철도, 금·은·동·철의 주요 자원의 생산, 세계대도시의 경위도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매우 독특한 구조로 주로 주제만을 제시하는 구조였다. 일본 개화기의 대표적인 서적이 된 「세계국진」은 후쿠자와 유키치가 두 번째로 미국 견학을 가서 직접 사가지고 온 미국의 지리교과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만들었지만, 미

국의 지리교과서의 구조와 순서를 뒤집어서 세계지리를 대륙별로 먼저 다룬 뒤, 보통학교용 지리교과서의 시작 부분에서 다루어졌던 3가지의 핵심적 구조인 천문지리학, 자연지리학, 인간지리학의 세 영역을 책의 마지막 부분에 배치시키는 구조를 가졌다. 즉 대륙별 지역지리를 먼저 다룬 다음 계통지리를 다루어, 미국의 보통학교에서 지리 과목을 위한 지리교과의 구조를 일본의 상황에 맞추어 재조정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800년대 당시 미국의 일반 중등학교에서 배우는 지리교과서가 기본적으로 Natural or Physical Geography, Mathematical or Astronomical Geography, Civil or Political Geography의 3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대적인 의미로 보면 자연지리(물리지리), 수리지리(천문지리), 정치지리(시민지리)로 옮길 수 있지만, 당시에 미국의 것을 처음 받아들인 일본에서는 이에 맞는 적절한 용어를 찾기 힘들었을 것이다. 앞장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후쿠자와 유키치는 「세계국진」에서 “天文の地理學, 自然の地理學, 人間の地理學”으로 번역하였으며, 우치다 마사오는 이를 지구와 천체를 다

루는 천문부(天文部), 지구의 여러 지역을 다루는 지리부(地理部), 지구의 여러 국가를 다루는 방제부(邦制部)로 번역하고 방제부에서 개화의 등급을 다루었다. 이와 유사하게 후카마우치 모토(深間内基)이 번역한 「여지소학(輿地小學)」(1874)에서는 “天文ノ部, 邦制ノ部”로 두 개의 부분만 번역되었다.

그런데, 당시 미국의 대학 진학을 위한 예비학교에서는 보다 심층적인 자연지리가 가르쳐졌으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Monteith(1885)의 책처럼 교과서의 명칭이 ‘고교 및 대학을 위한 자연지리’였다.

보다 전문적인 지리를 다루는 교과서인 자연지리교과서는 대체로 5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Earth, Land, Water, Atmosphere, Life의 순서로 구성되어, 지구를 다룬 다음 육지, 물을 다루고 대기를 다룬 다음 인간의 삶을 다루게 된다. Warren의 「자연지리(Physical Geography)」를 번역한 「격물지지(格物地誌)」(松木駒次郎 訳, 1876)를 보면,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이를 총론, 육지부, 수부, 대기부, 유기체로 번역하고 있으며, 3년 뒤 역시 Warren의 책을 문부성에서 번각(飜刻)한 「지리약론(地理論略)」(文部省 飜刻, 1879)을 보면 지질, 수리, 기상, 유기체로 번역하고 있다.

유길준은 후쿠자와 유키치를 통해 일본 계몽의 과정들을 매우 상세히 알게 되었을 것이고, 당시 일본 계몽기에는 후쿠자와 유키치를 중심으로 수많은 지리서들이 편찬되고 있었고 영향력이 컸던 상황이므로(한철호, 2015),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5대 지리서들을 접했을 것이며, 세계지리를 지구총론, 육부, 수부로 나누는 구조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이 조합되어, 「서유견문」의 1편은 지구총론과 육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2편은 수부와 인종, 물산으로 구성되었을 것이다. 특히 지리교과서에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개화의 등급”은 「서유견문」 전체의 중간부분에 위치시키고, 인종과 물산은 수부와 연속하여 앞쪽에서 다루도록 배치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대학입학을 예비과정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학습한 자연지리의 내용을 도입부인 1장과 2장에 좀 더 체계적으로 삽입하였는데,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지구에 대한 지리적 지식을 정리하여 넣었던 것이다. 앞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Warren의 자연지리교과서가 번역 및 편역이 되어 있었던 상태인데다, 유길준이 미국의 더머스쿨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공부하였으므로 자연

지리학의 지식을 1장과 2장에 삽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서유견문」의 앞부분에 「장중만국일람」의 앞부분의 내용을 배치하고, 좀 더 상세한 자연지리학의 내용을 첨가하면서 ‘지구→육지→해양’을 차례로 공부한 다음, 지구상에 살아가는 다양한 인류와 그들에 의해 생산되고 유통되는 다양한 국가들의 다양한 물산들을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가장 핵심적인 사상인 “문명개화의 단계”를 배치하면서, 서양 문물의 발달상을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의 여러 측면에서 제시하고, 마지막 부분에 서구문명이 꽃을 피운 도시문명을 소개하는 방식이 된 것이다.

2 제편의 지리 내용의 구성에 대한 논의

유길준은 「서유견문」의 1장에서 “지구세계의 개론”, “육대주의 구역”, “방국의 구별”, “세 개의 산”의 네 가지 항목을 제시한다. 이미 앞에서 논한 것처럼 유길준은 “지구세계”에 대해서는 더머스쿨에서 ‘자연지리’ 교과서를 통하여 깊이 있게 공부하였으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지구세계의 개론”에 포함된 내용들은 “지구와 태양계→지구의 자전과 공전→밤과 낮→지구의 위도와 경도, 기후대→대기의 구성과 순환→지구내부의 활동과 외부적 발산”의 순으로 차례로 구성되어 있다. 앞부분에서 전통적인 천원지방설을 혁파하기 위하여 지구가 둥글다는 지구구형설(地球球形說)을 제시하여 인식을 전환시킨 뒤, 지구에 대한 이해를 위해 지구의 5대 그리고 위도, 경도 등 지구의 구획과 자연현상에 관련된 개념들을 제시하고 있다.

“지구세계의 개론”에 이어서 “육대주의 구역”이라는 주제에서는 대륙을 동반구와 서반구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후쿠자와 유키치의 「장중만국일람」과 「세계국진」은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지 않는 반면, 우치다 마사오의 「여지지략」은 동반구와 서반구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서유견문」의 대륙을 소개하는 순서도 ‘아시아→유럽→아프리카’로 「세계국진」의 순서보다 「장중만국일람」의 제시 순서와 유사하다.

그런데 유길준의 「서유견문」에서는 이러한 동반구와 서반구의 구분에 이어서 “방국의 구별”에서는 대륙별로 국가들을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6과 표 7을 보면, 대륙별 국가 분류와 그 체계는 특히 유럽을 보면 우치다 마사오와 거의 동일한 순서로 유럽의 국가들을 소개하

표 6. 유길준(俞吉濬),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우치다 마사오(内田正雄)의 세계지리의 내용 구조 (전체 구조와 아시아)

	「掌中萬國一覽」 (福澤諭吉, 1869. 1月)	「世界國盡」 (福澤諭吉, 1869. 10月)	「輿地誌略」 (内田正雄 編訳, 1870-1877)	「世界大勢論」 (俞吉濬, 1883) “世界大勢一斑”	「西遊見聞」 (俞吉濬, 1889) “邦國의 區別”
세계 육지, 바다의 구분	대륙별 면적과 인구(五大洲, 五大洋) 亞細亞洲, 歐羅巴洲, 亞非利加洲, 北亞米利加洲, 五大洋諸島, 南亞米利加洲 太平洋, 亞多刺洋, 印度洋, 北極洋, 南極洋	영국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인종과 인구의 개략적인 설명(五大洲) 亞細亞洲, 阿非利加洲, 歐羅巴洲, 北亞米利加洲, 南亞米利加洲 - 대양洲 - 별도의 제시 없음	도입대륙별 면적과 인구를 제시하고 있으며, 동반구, 서반구(五大洲, 五大洋) 亞細亞洲, 歐羅巴洲, 亞非利加洲, 亞米利加洲, 阿西亞尼亞洲, 太平洋, 印度洋, 大西洋, 北水洋, 南水洋(동→서)	대륙별 국가의 짧은 설명(五大洲, 五大洋) 亞細亞洲, 亞非利加洲, 歐羅巴洲, 中亞墨利加洲 - 北亞墨利加洲, 大洋洲, 太平洋, 大西洋, 印度洋, 北水洋, 南水洋(크기 순)	대륙별 국가의 설명 없이 열거(五大洲, 五大洋) 亞細亞洲, 歐羅巴洲, 阿非利加洲, 南北阿美利加洲, 大洋洲, 北極海, 南極海, 大西洋, 太平洋, 印度海(크기별로 재분류 제시)
아시아	- 다루지 않음 - 서론의 7쪽 “蠻野文明의 別”에서 문명발달을 만야(蠻野)와 문명(文明)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각각 다시 이등분하여 혼돈(混沌)과 만야, 그리고 미개(未開) 문명과 개화(開化) 문명 4개의 단계로 제시	支那 前印度 暹羅, 安南, 尾留滿國, 西藏國 後印度 阿芙蓉仁須丹, 土留喜須丹 邊留社 荒火屋國 土留古 魯西亞 - 동쪽의 일본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기술	日本 支那 西比利亞 後印度 比耳西亞, 亞業加坦, 皮路直坦 前印度 土耳其斯坦, 亞細亞土耳其, 亞拉比亞 東印度諸島	朝鮮 支那 蒙古-伊犁-西藏 後印度 安南, 暹羅, 緬甸, 老撾, 英領緬甸 前印度 英領印度, 佛領印度, 葡領印度 波斯 亞業加坦 土耳其斯坦 皮路直坦 亞細亞土耳其 亞拉比亞 呂宋 蘇祿諸島 瓜哇 蘇門答臘 婆羅, 馬路古諸島, 小巽他諸島	朝鮮 淸國(支那) 日本 安南 暹羅 緬甸 阿富汗 印度 體八 西藏 波斯 (기타) 繁累穢斯坦, 古親支那, 土基斯坦, 新嘉坡, 甘保社野, 葛南非野 (타키령) 世泉野, 巨馬斯坦, 巴禮斯坦, 美昭布太糜亞, 亞羅比亞, 阿美尼亞

출처 : 福澤諭吉 記, 1969a; 1869b; 内田正雄 編訳, 1870-1877; 유길준, 허경진 역, 2004.

고 있다. 그러나 대륙별 내용에서는 아시아 대륙의 경우, 유길준의 「세계대세론」은 후쿠자와 유키치의 「세계국진」과 우치다 마사오의 「여지지략」과 같이 동아시아 지역을 제외한 남부아시아와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를 설명할 때 전인도(前印度)-후인도(後印度)라는 틀을 이용하여 지역을 설명하는데, 「서유견문」에 와서는 이러한 구조를 없애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국가들을 소개하되 식민지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다루었다.

특히 유럽 대륙의 국가들에 대한 기술을 보면(표 6, 표 7 참조), 유길준이 「세계대세론」에서는 우치다 마사오의 「여지지략」과 거의 동일한 순서로 기술해나가고 남아메

리지역은 대부분 유럽의 식민지이어서 유럽에서 소개하는데 비해, 「서유견문」에서는 이러한 틀을 완전히 벗어나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유럽의 산업화가 주도적인 나라들을 먼저 소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들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동일한 양상이 나타난다. 「세계대세론」은 우치다 마사오의 「여지지략」에서 대륙별 국가를 다루는 구조와 순서가 거의 비슷하게 기술이 되는 데 비해, 「서유견문」에서는 이러한 구조와 순서를 벗어나 일본 유학에 이어 미국 유학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한 국가를 중심으로 간략하고 간명하게 기술되었다.

표 7. 유길준(俞吉濬),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우치다 마사오(内田正雄)의 세계지리 저서의 내용 구조 2(유럽)

	「掌中萬國一覽」 (福澤諭吉 記, 1869. 1月)	「世界國畫」 (福澤諭吉 記, 1869. 10月)	「輿地誌略」 (内田正雄 編訳, 1870-1877)	「世界大勢論」 (俞吉濬, 1883) “世界大勢一斑”	「西遊見聞」 (俞吉濬, 1889) “邦國의 區別”
유럽	歐羅巴三帝十五王 三帝國: 澳地利, 魯西亞, 佛蘭西 十五王: 英國, 普魯士, 瑞典, 西班牙, シリ, 撒丁, 伊太利, 葡萄牙, ハワリヤ (日耳曼 內), 噶國, 和蘭, 白耳義, 希臘, 阿諾威, ウ ルテンボルフ(日耳曼 內), サクソニ 歐羅巴五大國并亞米利加 合衆國: 英吉利 佛蘭西 澳地利 普魯士 魯西亞	英吉利 佛蘭西 西班牙 葡萄牙 白耳義 瑞西 伊太里 希臘 澳地利 普魯士 瑞西 和蘭 白耳義 噶國 瑞典 能留英 魯西亞 - 유럽주의 시작 부분 에 문명개화(발달) 단계 기술	英吉利 佛蘭西 和蘭 比利時 西班牙 葡萄牙 日耳曼 澳地利 噶國 瑞典 魯西亞 瑞西 以太利 希臘 土耳其	英吉利 佛蘭西 和蘭 比耳義 西班牙 葡萄牙 日耳曼 澳地利 噶 瑞典-那威 魯西亞 瑞西 伊太利 希臘 巴西 亞然丁合邦, 秘魯 智利, 玻里非, 巴拉圭, 烏 拉乖, 巴他峨尼, 西比亞 - 남미는 유럽식민지여서 유럽에 포함	英吉利 佛蘭西 日耳曼 澳地利 匈牙利 伊太利 荷蘭 白耳義 山馬利路 丁抹 安道羅 葡萄牙 瑞西 諾威 西班牙 土耳其 希臘 瑞典 樓瀾尼亞 俄羅斯 西比亞

출처 : 福澤諭吉 記, 1869a:10; 1869b:1; 内田正雄 編訳, 1870-1877; 유길준, 허경진 역, 2004.

한편, 제1장의 마지막 주제는 “세계의 산”인데, 일정한 분류 체계에 따라 기술한 점이 특징적이다. 즉 유길준은 “세계의 산”의 대분류는 대륙별 분류에 기초하되, 대륙별로 산의 규모와 산세에 따라서 일등산과 이등산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세계의 산지들에 대한 일등산과 이등산의 분류는 당시에 널리 통용되는 것은 아니었고, 일본의 계몽기의 지리교과서에서도 자주 소개되는 내용은 아니었다.

유길준은 미국 유학 당시 하버드(Harvard), 보스톤(Boston) 등 미국 동부의 명문대학이 많이 포진한 지역에서 대학 진학을 위한 예비대학 커리큘럼을 가진 더머스쿨에서 공부를 하였다.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더머스쿨에서 지리를 배우고 있었고, 당시 미국 동부의 전통적인 명문대학들은 주로 “자연지리(Physical Geography)”를 가르치고 있었다. 따라서 유길준은 일반 중등학교의 지리교과서가 아닌 당시로서는 보다 전문화된 “자연지리” 교과서를 사용하여 배웠을 것이다.

당시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연지리교과서는 가장 널리 채택되었던 Guyot(1873)의 *Physical Geography* 교과서를 비롯해 몇 종류가 있다. 그 중에서도

2장에서 언급한 유길준이 에드워드 모스 교수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연지리의 학습내용으로 제시한 “분천, 화산, 지진 그리고 대륙별 구조”의 순서와 유사한 내용 배열을 가진 자연지리교과서를 보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Maury(1885)의 *Physical Geography*와 Monteith(1885)의 *New Physical Geography*이다. 1850년대 중반 이후에 영향력이 컸던 Guyot의 자연지리교과서도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내용 전개순서는 이와는 차이가 있다.

「서유견문」에서 대륙의 배열에 이은 산지에 대한 설명을 보면, 6개의 대륙별로 일등산(Primary Mountains)과 이등산(Secondary Mountains)을 모두 제시하고 있는데, Monteith(1885)의 것은 이러한 방식의 기술이 없으며, Guyot(1873)의 것은 몇 개 대륙과 지역에서만 일등산과 이등산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6개 대륙별 일등산과 이등산을 모두 설명하는 서술 구조를 가진 교과서는 Maury(1885)의 것이 유일하다. Maury(1885)는 “대륙별 기복의 일반적 양상”이라는 제목 하에서 1) 대륙별 지형의 구분과 그 특성, 2) 일차적 주요 고산지대, 3) 이차적 고산지대, 4) 대륙의 가장 중요한 지형적 특성의 4가지로 기술하고 있으며, 유길준의 2장의 세 번째 주제

표 8. Maury(1885)의 *Physical Geography* 의 목차와 “대륙의 기복” 내용

PART I. THE EARTH.			
I. The Earth as a Planet.....	6	V. The Sea.....	52
II. Planetary Movements.....	8	VI. The Oceans.....	54
III. Magnetism of the Earth.....	10	VII. Waves and Tides.....	55
IV. Internal Heat of the Earth.....	13	VIII. Currents of the Sea.....	61
V. Volcanoes.....	15		
VI. Earthquakes.....	21	PART IV. THE ATMOSPHERE.	
PART II. THE LAND.		I. Physical Properties of the Atmosphere.....	69
I. Arrangement of Land Masses.....	26	II. Climate.....	70
II. Forms of Land.....	27	III. Winds and Circulation of the Air.....	75
III. Relief Forms of the Continents.....	30	IV. Storms.....	81
IV. Islands.....	88	V. Moisture of the Air.....	85
PART III. THE WATER.		VI. Hail, Snow, and Glaciers.....	94
I. Properties of Water.....	48	VII. Electrical and Optical Phenomena.....	98
II. Waters of the Land.....	45		
III. Drainage.....	50	PART V. LIFE.	
IV. Continental Drainage.....	51	I. Relations between Plants and Animals.....	101
		II. Range of Plants and Animals.....	102
		III. Man.....	116
		IV.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Labor.....	121

III. Relief Forms of the Continents	4. The Central Region	Africa
1. General Features of Continental Relief	Europe	1. The Continent of Africa
North America	1. Europe	2. <u>The Primary Highland</u>
1. North America	2. <u>The Primary Highland</u>	3. <u>The Secondary Highlands</u>
2. Pacific Highland	3. <u>The Secondary Highlands</u>	4. The Interior
3. <u>The Secondary Highland</u>	4. Low Europe	Australia
4. The Central Region	Asia	1. Australia
South America	1. Asia	<u>The Primary Highland, The Secondary Highlands, the central lowland</u>
1. The general features	2. <u>The Primary Highland</u>	
2. <u>The Primary Highland</u>	3. <u>The Secondary Highlands</u>	
3. <u>The Secondary Highlands</u>	4. The Great Low Land	

출처 : Maury, 1885:30-37.

* 밑줄 친 부분은 일등산과 이등산으로 「서유견문」의 “세계의 산”과 분류가 일치함.

인 “세계의 산”의 내용 전개 구조와 일치한다. 즉 유길준의 「서유견문」의 제2장의 세 번째 주제인 “세계의 산”의 내용은 Maury(1885)의 *Physical Geography*의 2부 3장의 “대륙의 기복”의 틀을 가져온 것이었다. 표 8은 Maury(1885)의 자연지리학 교재의 전체 목차의 구조와 Part II의 3장의 내용을 보여주는 표이다. 따라서 유길준이 더머스쿨에서 공부한 자연지리교과서는 Maury(1885)의 *Physical Geography*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V. 결론

이 연구는 개화기 선구적인 계몽운동가이고, 개혁가인 유길준의 가장 대표적인 저서인 「서유견문」에 실린 지리 관련 내용들을 분석하여 내용적인 특성과 해당 지식의 출처와 근거에 대해 살펴보았다.

유길준은 젊은 시절 박규수로부터 「해국도지」를 건네 받아 배우고, 조선의 개화와 근대화의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자 미국 유학생이었다. 두 번의 유학이 모두 조선의 정치적 급변 상황으로 인하여 중도에 귀국할 수밖에 없어 짧게 끝났지만, 우리나라의 개화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 유길준은 근대화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계몽적인 지식을 국민들에게 주고자 노력하였으며, 세계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국가적인 수준에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방면에서 방대한 지식들을 집성하여 개화의 방향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유길준은 박규수로부터 세계에 대한 지식과 인간사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지식 및 안목을 얻기 시작하여, 일본과 미국 유학을 하면서도 조선이 발전해나가기 할 방향을 모색하면서 지리 지식을 통한 계몽과 세계적 관점을 중요하게 보았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유길준의 개화와

근대화 방향으로의 개혁은 세계 여러 나라들 특히 산업 혁명과 국가제도의 근대화를 통해 발전한 서구의 선진 국가들의 발전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었다. 유학의 과정에서 후쿠자와 유키치가 자국의 개화를 위해 지리 지식이 유용하게 사용되고 세계인식을 키우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직접 보았으며, 미국 유학에서 에드워드 모스를 통해 진화론과 사회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조선은 어떻게 발전해나가야 하고 진화해나가야 하는지를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유길준에 있어서 지리 지식은 계몽과 개화를 위한 출발점이었으며, 세계지리는 세계를 파악하고 세계적 인식과 관점을 만들기 위한 객관적 지식형성의 도구였으며, 발전된 세계상을 보여주는 미래의 전망이자 조선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디딤돌이었다.

註

- 1) 1889년 늦은 봄에 원고를 완성했으나, 출판은 1895년 후쿠자와 유키치가 운영하던 일본의 교순사(交詢社)에서 하였다.
- 2) 이 방대한 내용을 다루기 위해 유길준이 가장 많이 참조한 책은 후쿠자와 유키치의 「서양사정」이었으며, 헨리 포셋(Henry Fawcett)의 「부국책」, 헨리 휘턴(Henry Wheaton)의 「만국공법」, 오웬 데니(Owen Denny)의 「청한론(淸韓論)」, 윌리엄 블랙스톤(William Blackstone)의 「영법석의(英法釋義)」, 버튼(Burton)의 「정치경제학」 등을 참고하였다고 한다(장인성, 2017:24-25).
- 3) 박규수는 박지원(朴趾源)의 손자로 노론 북학파에 직결되지만 남인, 북인들과도 폭넓게 학문적 교류를 하였다.
- 4) 이경직은 박규수와 가까운 사이였고 박규수는 유길준의 시문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 만남은 5대째 내려온 양 가문의 적대감을 푼 것이어서 당시 장안의 큰 화제가 되었으며, 한국 현대사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었다. 이경직이 박규수의 유길준에 대한 깊은 관심을 확인하고 집안을 설득하여 박규수와 유길준의 상면이 이루어졌다.
- 5) 후쿠자와 유키치는 1860년 견미사절단(遣米使節團)으로 미국을 방문하였고, 1862년 견구사절단(遣歐使節團)으로 유럽견학을 하였으며, 1867년에는

다시 미국을 방문하였다.

- 6) 변상숙(2013:60-61)에 따르면, 판형도 몇 가지가 있는데, 「세계국진」은 1869년의 초판과 1871년의 재판이 6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872년 합본(合本)하여 만든 3권의 책과 1875년 해서체로 쓴 1권의 책이 있으며, 「세계국진」의 정확한 명칭은 「두서대전세계국진(頭書大全世界國盡)」으로 「소본 세계국진(素本 世界國盡)」은 3권으로 구성된, 서문, 두서(頭書), 부록 일체를 제외한 본문만을 수록한 것이다.
- 7) The Governor's Academy 홈페이지.
- 8) 보스턴대학교(Boston University) 진학에 대한 견해도 있지만, 보스턴대학교에는 흔적이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Boston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 Boston Korean Diaspora Project)
- 9) 김영식·김근배 편(1998:69)에 “방제지리학 -각국의 크고 작음 등과 정치, 인지(人智)의 정도 등”을 다루는 분야로 제시하고 있으며, 「한성주보」 25호에서 24호에 연재한 ‘지리초보’라는 교재의 내용에 대한 예고기사에 대한 보도에 나오는 내용과도 동일하다. 이는 다음에 논할 우치다 마사오의 지리서인 「여지지략」에서 다루고 있는 “방제부”라는 용어에서 따온 것으로, 방제는 국가보다 약간 결집력이 떨어지는 집단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당시 미국 지리교과서 내용의 세 구조를 이룬 Civil or Political Geography를 일본식으로 번역하여 사용한 용어이다.
- 10) 荒山正彦(2013)의 논문을 보면, 「만국명소도회」에 나오는 서구의 도시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시의 소개 순서가 사절단의 주요 방문 경로를 따라서 소개되어 있지 않고 도시의 중요도에 따라 소개되어 있다.

참고문헌

- 김명호, 2008, 「환재 박규수 연구」, 서울: 창비.
- 김연옥, 2017, “세계지리교과서 『輿地誌略』에 보이는 문명관과 아시아인식” 일본역사연구, 45, 29-58.
- 김영식·김근배 편, 「근현대 한국사회의 과학」, 서울: 창작과비평사.
- 김현주, 2004, “서유견문과 계몽기 知의 場” 유길준, 허경진

- 역, 『서유견문』, 서울: 서해문집, 585-607.
- 남상준 1992, “한국 근대학교의 지리교육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근갑, 2014, “역사, 문명, 진보 -후쿠자와 유키치와 유길준의 시간 인식” 사총, 83, 169-201.
- 박성희, 2013, “『特命全權大使 米歐回覽實記』에 나타나는 서양 도시와 지명의 가타카나 표기,” 도시연구, 8, 123-153.
- 박양신 2008, “근대 초기 일본의 문명 개념 수용과 그 세속화,” 개념과 소통, 2, 33-74.
- 박한민, 2013, “유길준 『世界大勢論』(1883)의 전거(典據)와 저술의 성격,” 한국사학보, 53, 35-72.
- 박한민, 2015, “유길준 《세계대세론》의 전거와 저술의 성격” 최덕수·이토 슌스케·박한민·김형근·유바다·양진아·김윤희, 『근대 한국의 개혁 구상과 유길준』,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59-102.
- 변상숙, 2013, “福澤諭吉의 『素本 世界國畫』에 나타난 지명 표기에 관한 고찰,” 일본문화학보, 56, 59-74.
- 변상숙, 2014, “明治期の 外國地名 表記 研究: 『후쿠자와』의 지리 관련 서적을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변상숙, 2017, “복택유길(福澤諭吉) 지리서에 나타난 외국지명의 한자표기 연구,” 일본근대학연구, 55, 39-54.
- 변상숙·이경규, 2014, “『世界國畫』의 외국지명 표기에 대한 고찰,” 일본근대학연구, 46, 25-40.
- 서명일, 2017, “『서유견문』 19~20편의 전거와 유길준의 번역,” 한국사학보, 68, 93-128.
- 손형부, 1990, “<關衛漸編雜語>와 <地勢儀名并序>에 나타난 박규수의 서양론,” 역사학보, 127, 75-113.
- 심정보, 2013, “근대 일본과 한국의 지리교과서에 나타난 동해 해역의 지명에 한 고찰,” 문화역사지리, 25(2), 37-55.
- 오상학, 2018, “환재 박규수의 천문·지리학,” 임형택·신로사·오상학·김용태·김명호·김홍수, 『환재 박규수 연구』, 서울: 학자원, 151-207.
- 유길준 허경진 역, 2004, 『서유견문』, 서울: 서해문집.
- 유동준 1993, 『유길준전』, 서울: 일조각.
- 윤소영 “근대 일본 관찬 地誌와 지리교과서에 나타난 독도 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6, 363-407.
- 이광린 1979, “俞吉潯의 開化思想 -『西遊見聞』을 중심으로,” 『韓國開化思想研究』, 서울: 일조각, 45-92.
- 이성규, 1995, “중화상상과 민족주의,” 정문길·최원식·백영서·전형준 편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 서울: 문학과
- 지성사, 107-153.
- 이예안, 2018, “유길준 『세계대세론』의 근대적 개념 이해와 개항기 조선 우치다 마사오 『여지지략』과의 비교를 단서로,” 한국학연구, 64, 139-168.
- 이원순, 1991, “朝鮮實學知識人の 漢譯西學地理書 이해,”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편 『한국의 전통지리사상』, 서울: 민음사, 11-40.
- 이한섭, 1999, “西遊見聞에 나타난 外國地名 및 人名의 漢字表記에 대하여 -日本式 表記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일본어학연구, 1, 185-201.
- 장보용, 1970, “개화기의 지리교육,” 지리학, 5, 41-58.
- 장인성, 2017, 『서유견문』, 서울: 아카넷.
- 전민호, 2012, “개화기 학교교육개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광희, 1998,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학문론에 대한 일고찰,” 교육과학연구, 28, 93-112.
- 정영숙, 2000, “開化期 資料에 나타난 外國地名의 漢字表記 研究,”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덕수·이토 슌스케·박한민·김형근·유바다·양진아·김윤희, 『근대 한국의 개혁 구상과 유길준』,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 한철호, 2015, “메이지시기 일본 지리교과서의 대한(조선)협력 명칭 변화와 그 의미,”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0, 203-242.
- 허동현, 2002, “1880년대 개화파 인사들의 사회진화론 수용 양태 비교 연구 -유길준과 윤치호를 중심으로-,” 사총, 55, 169-193.
- 허동현, 2011, “유길준의 서양명명 인식론: 사회진화론의 수용을 중심으로,” 한일문화교류기금·동북아역사재단 편 『한국과 일본의 서양명명 수용: 1910년 그 이전 100년』, 서울: 경인문화사, 159-179.
- 허동현, 2017, “유길준의 해외체험(1881~1885)과 『중립론』(1885)에 보이는 열강 인식,” 한국사학보, 68, 35-65.
- 허수, 2013, “세계대세론” 한림과학원 편 『동아시아 개념연구 기초문헌해제』, 서울: 선인, 104-110.
- 可德斯米, 望月誠 訳, 1873, 『萬國地理啓蒙』, 東京: 和泉屋市兵衛.
- 瓜生(三)寅, 1872, 『瓜生氏日本國畫卷1五畿内』, 東京: 名山閣.
- 橋爪貫一 纂, 1869, 『開知新編』, 東京: 椀屋喜兵衛.
- 内田正雄 編訳, 1870-1877, 『輿地誌略』, 東京: 大學南校.
- 木全清博, 2006, “地理教科書” 滋賀大学附屬図書館 編 『近

- 代日本の教科書のあゆみ -明治期から現代まで], 彦根
サンライズ出版, 50-58.
- 文部省 翻刻, 1879, 地理論略 -> 文部省 翻刻, 1879, 地理論
略, 東京: 文部省.
- 福澤諭吉, 1866a, 「西洋事情」, 東京: 慶應義塾大学出版會.
- 福澤諭吉, 1866b, 「小引」, 東京: 慶應義塾大学出版會.
- 福澤諭吉, 1872, 「學問のすすめ」, 東京: 慶應義塾出版局(남
상영·사사카와 고이치 역, 2003, 「학문의 권장」, 서울:
소화).
- 福澤諭吉 訳, 1869a, 「壯中万国一覽」, 東京: 福澤藏版.
- 福澤諭吉 訳, 1869b, 「(頭書大全)世界國盡」, 東京: 慶應義塾.
- 師範學校 編, 1873a, 「地理初歩」, 東京: 文部省.
- 師範學校 編, 1873b, 「日本地誌略」, 東京: 文部省.
- 師範學校 編, 1874, 「萬國地誌略」, 東京: 文部省.
- 山田行元 編, 1875, 「地學初歩」, 東京: 富城屋.
- 西村恒方 訳, 1872, 「萬國地理訓蒙 二編 上」, 東京: 東京書林.
- 松木駒次郎 訳, 1876, 「格物地誌」, 奈良県: 松本駒次郎.
- 松山棟菴 訳, 1870, 「地學事始」, 東京: 慶應義塾出版局.
- 松村精一郎 訳, 1886, 「萬國地誌階梯」, 東京: 江島伊兵衛.
- 順川賢久 訳, 1876, 「萬國地理志」, 東京: 順川氏藏.
- 市橋長定·桜井庄太郎 訳, 1873, 「密留氏 大地理書」.
- 深間内基 訳, 1874, 「輿地小學」, 東京: 名山閣.
- 中川浩一, 1978, 「近代地理教育の原流」, 東京: 古今書院.
- 増野恵子, 2006, 「見える民族 見えない民族—『輿地誌略』の
世界観—」, 神奈川大學 21世紀 COEプログラム編 第1
回 国際シンポジウム プレシンポジウム, 「版画と写真—
19世紀後半出来事とイメージの創出—」, 神奈川: 神奈
川大學, 37-59.
- 川村博忠, 2003, 「明治初期の文明開化 と地理教育」 総合人
間科學, 3, 9-24.
- 荒山正彦, 2013, 「『世界旅行萬國名所圖繪』の復刻と同書に
関する覚 え書き」 関西学院史學, 40, 47-76.
- Craig, A.M., 2009, *Civilization and Enlightenment: The
Early Thought of Fukuzawa Yukichi*, Boston: Harvard
University Press.
- Guyot, A., 1873, *Physical Geograph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 Lee, K., 1990, The letters of Yu Kil-chun, *Korean Studies*,
14, 98-118.
- Maury, M.F., 1885, *Physical Geography*, New York:
University Publishing Company.
- Mitchell, S.A., 1878, *Mitchell's New School Geography: A
System of Modern Geography*, Philadelphia: J. H.
Butler & Co.
- Monteith, J., 1885, *New Physical Geography for Grammar
and High school, and Colleges*, Chicago: American
Book Company.
- Patton, J.C., 1999, The American school atlas: 1784-1900,
Cartographic Perspectives, 33, 4-32.
- Schulten, S., 2001, *The Geographical Imagination in
America, 1880-1950*,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artzt, W., 1964, *Geography Now and Then*, New York:
American Geographical Society.
- Warren, D.M., 1860, *A System of Physical Geography*,
Philadelphia: H. Cowperthwait & Co.
Boston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 Boston Korean
Diaspora Project, "Yu Kil-Chun (1856-1914): A
Bridge-person of Korea to the West and the first
Korean student in the United States", [http://sites.
bu.edu/koreandiaspora/individuals/boston-in-the-1
880s/yu-kil-chun-1856-1914-a-bridge-person-of-ko
rea-to-the-west-and-the-first-korean-student-in-th
e-united-states](http://sites.bu.edu/koreandiaspora/individuals/boston-in-the-1880s/yu-kil-chun-1856-1914-a-bridge-person-of-korea-to-the-west-and-the-first-korean-student-in-the-united-states)
- The Governor's Academy 홈페이지, "Yu Kil-chun", [https://
withtruecourage.org/person/yu-kil-chun](https://withtruecourage.org/person/yu-kil-chun)
- 교신 : 서태열,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이메일: tyseo@
korea.ac.kr)
- Correspondence : Tae-Yeol Seo, 02841, 145 Anam-ro,
Seongbuk-gu, Seoul, Korea, Department of Geo-
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Email: tyseo@korea.ac.kr)

투 고 일: 2019년 10월 23일
심사완료일: 2019년 11월 19일
투고확정일: 2019년 11월 29일

